

ASSOCIATION NEWS

신훈 회장, '건설 산업 상생 협력 결의대회' 참석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지난 8월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는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권홍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건설 관련 정부기관장, 건설단체장 및 건설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현장 선포식은 고유가와 건설 원자재가격 급등 등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대·중소업체간 구분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지를 다지고 상생협력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의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인 모두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건설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의 행사는 매우 뜻깊고 중요하다"며, "오늘 상생협력현장 선포식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건설산업 선진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재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는 상생협력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PQ심사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 실천규약 표준안'을 제정·보급하는 등 상생협력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말에 우수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대상(大賞)'도 마련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장(왼쪽부터), 신훈 한국주택협회장, 권홍사 회장,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규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건설은 하나"를 외치며 상생협력 의지를 다지고 있다.